



34_worldview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5월이 되자 아이들은 그들의 봄인양 한껏 들떴습니다.
다양한 주일학교 행사로 분주하다 보니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잇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꼭, 가르쳐야 할까요?

Q1. 요즘 아이들은 재미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고, 재미가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사건인 남북전쟁을 그린 영화 <게티스버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공들여 잘 만든 걸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장장 4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앞부분은 역사적 배경 설명이어서 지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는 인내심을 갖기 어려운 영화였습니다. 아이들은 내내 지겨워하며 졸다가 전투 장면이 이르면 갑자기 흥분해서 야단 법석을 떠다는 겁니다. 특히 포탄에 사람들이 찢겨 죽어 넘어지는데 모두들 좋아했다고 해요.

영화관람을 지도하던 교사가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 영화를 중단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야단 쳤다고 합니다. “여기 묘사된 사건은 실제 역사이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너의 먼 할아버지들이다. 이

것은 비극이지 놀이가 아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고 다시 보게 하니깐 똑같은 영화, 똑같은 관객인데, 같은 장면에 이르자 우는 아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요? 영화를 보는 안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안목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세계관은 일종의 안경입니다. 빨간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붉게 보이는 것처럼 세계관은 우리가 삶을 보는 안목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안경뿐 아니라 책도 그런 일을 합니다.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들이 안경이 되는 거지요. 특히 한 편의 설교나 수업은 분명히 아이들의 안목을 바꾸어 놓습니다.

안목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안목과 행보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달라 안목에 따라 이해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는 관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만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안목에 따라 그 가는 행보가 결정되곤 하지요. 오래 전에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자주 갔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하도 자주 가다 보니 안내에 이력이 났습니다. 폭포에 도착하면 먼저 높은 타워에 데리고 올라가 전망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단 전경을 보고 나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내 인도도 잘 따르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일도 없어 시간도 절약되고 힘도 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폭포구경만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조망하는 일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은 세계관 형성에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 삶의 방향과 비전이 분명해지니까요. 모른다면 방황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왜 있는지, 왜 사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까요. 세상이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이의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생각도 세상을 보는 안목을 형성하는데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은 삶의 방향과 행보를 결정합니다.

Q2. 삶을 조망한다...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목이 무언가를 꼭 배워야만 아는 건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앎을 원한다.” 모든 인간은 세상이 왜 있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왜 삶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질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씩씩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거기엔 남녀노소나 학식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씩씩을 한다고 모두가 같은 답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는 동일한 세계관이 공유되곤 합니다. 신앙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날엔 교통과 통신이 극도로 발달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이면서 세계관도 섞여 버렸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도 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지않습니다. 많은 세계관들이 뒤섞여 경쟁을 벌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원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회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기독교 세계관에 있습니다.



믿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인체의 부분을 정신적 기능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은 마음에, 욕심은 배에, 행동은 손과 발에, 분석적인 이해는 두뇌에, 그리고 좋지 않은 심사는 오장과 “뱀”에 연관을 시킵니다. 믿음은 눈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실증주의적인 정신이 지배해 온 서양에서는 믿음을 보는 것과 연관시켜 왔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내 주관적인 마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이 육신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준다 는 것입니다.

언젠가 딸에게 장난감 현미경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도 명색이 현미경인지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눈이라면 하나님 말씀, 특히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안경과도 같습니다. 말씀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들의 좁아진 안목을 넓히는 교정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밝아진 눈, 성경적 믿음의 사람은 망원경을 보듯 멀리 있는 것을 내다 보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밝혀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이상 MP) 등이 있다.

